

가깝고도 가까운 나라 한국을 다녀와서

도기또 리쥬무(時任 리즈ム) /

삿보로 시 건강을 지키는 부인단체연합회 회원

우리들 “북해도 건강을 지키는 부인단체연합회” 회원은 한국의 결핵사정 시찰을 위하여 '94년 3월 23일부터 27일까지 4박 5일 동안 서울시로 여행을 떠났었습니다.

참가자는 구시로(釧路), 무로랑(室蘭), 니갑부(新冠) 등에서 15명, 삿보로 시에서 11명 해서 모두 26명이었습니다. 우리 일행 전원은 무사히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돌아왔습니다.

제1일 (3월 23일)

신찌도세(新千歳) 공항에 전원집합하여 14시 25분 출발, 서울 김포공항 17시 40분 도착, 3시간의 여행은 시차도 없고 전혀 피로하지도 않았습니다.

입국 수속을 마치고 밖으로 나오니 서울은 그 유명한 러시 아워였습니다. 그것을 피하기 위하여 교외의 음식점에서 저녁식사를 하고 호텔로 향했습니다.

호텔은 한국에서 제일 좋다는 롯데 호

텔로 들던 평판과 같이 훌륭했습니다. 이곳에서 4박을 했습니다.

제2일 (3월 24일)

아침 9시에 호텔을 출발하여 대한결핵협회에 도착, 김대규 사무총장의 협회 사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었고, 계속해서 정기자 복십자부인봉사회장과 이복련 복십자운영위원의 복십자부인봉사회 연혁 및 활동사항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어 복십자위원을 시찰하였습니다.

이 날 버스로 협회에 도착했을 때 복십자부인봉사회 여러분이 마중을 나와 주었고 이틀간 행동을 함께 하였습니다.

부인회 여러분의 친절과 자상한 노력에 우리 일행 모두는 정말로 감격했습니다. 또한 대단히 적극적이고 밝은 모습에서 나라가 발전할 때의 힘, 원동력 같은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일본에서는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이 복십자 썰 모금인데 한국에서는 모금이 순

조롭게 잘 되고 있는 데 또 한번 놀랐습니다.

이 날 협회에서 준비해준 크리스마스 썰을 받았습니다. 받은 것 모두 한결같이 누가 보아도 탐이 날 정도로 도안과 색상이 센스 있고 아름다웠습니다. 일본의 썰도 한국의 것과 같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부러웠습니다.

오후에는 제12회 세계 결핵의 날 기념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기념강연에서 이사가 "일본의 결핵과 부인단체의 역할"이란 제목으로 강연을 했습니다.

제3일 (3월 25일)

아침 9시 30분 호텔을 출발하여 복십자 부인봉사회원과 함께 버스를 타고 차 안에서 자기 소개도 하고 한국의 민요인 아리랑을 배워 부르기도 하면서 화기에애한 시간을 보내며 시몬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시몬의 집은 서울 외곽에서 자연의 혜택을 입는 좋은 환경에 둘러싸여 있었고, 또 복십자부인봉사회가 봉사하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카톨릭 교회에서 운영하고 신자들이 봉사의 주축이 되어 결핵난치환자 30여 명이 치료에 전념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정성스레 준비한 작은 선물을 전하고 하루 빨리 회복되기를 바라면서 헤어졌습니다.

점심은 복십자부인봉사회에 초대로 유서깊은 송원에서 한국의 음식맛을 보았습니다.

오후에는 예정이 조금 늦어진 시간에 결핵연구원을 방문하여 직원 여러분의 따뜻한 환대를 받았고 홍영표 결핵연구원장의 한국의 결핵에 대한 강의를 들었습니다.

한국의 식사에 대해서

한국의 요리는 맵다고 들었으나 매운 가운데서도 단맛이 있었습니다. 불고기, 김치, 무엇이나 맛있고 야채도 신선했고 양도 많았습니다.

반찬종류는 많으나, 분량이 딱 맞아 한국에서 일본에서처럼 비만을 볼 수 없는 것은 이런 좋은 식생활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일본요리는 장어, 김밥, 모밀국수 등 어느 것이나 야채 부족이며, 단백질, 탄수화물과 지방이 많고 조미료도 많은 편입니다.

이번 한국의 요리를 맛보고 야채를 많이 조미료를 적게 써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친절하게 대해준 결핵협회 직원 여러분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정기자 복십자부인봉사회장이 말씀한 것같이 일본은 가깝고도 먼 나라였으나 지금부터는 가깝고도 가까운 나라로 하지 않으면 안되겠다고 깊이 생각했습니다.

저의 마음에는 한국이 벌써 가깝고도 가까운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마음속 깊이 기원합니다.

✚